

김주현 금융위원장, 미래에너지펀드 조성 협약식 참석

- 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(국민, 신한, 하나, 우리, 농협)이 ‘30년까지 총 9조원을 출자해 미래에너지펀드를 조성하여 재생에너지 설비 증설에 투자
- 미래에너지펀드는 상반기 중 조성을 완료하고 올해 중 투자 집행 추진 계획

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은 4.17일 미래에너지펀드 조성 협약식에 참석하였다. 금융위는 지난 3월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」을 통해 ‘30년까지 ①기업들의 저탄소 공정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420조원의 정책금융 공급, ②청정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 조성, ③기후기술 선점을 위한 3조원 규모의 기후기술펀드 신설을 비롯한 총 9조원의 기후기술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다.

이 중 미래에너지펀드는 주로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하는 펀드로, 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(국민, 신한, 하나, 우리, 농협)이 ‘30년까지 총 9조원을 출자한다.

김주현 금융위원장은 “우리나라는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”이라며, “미래에너지펀드가 재생에너지 설비 증설에 필요한 금융수요 160조원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은행은 시장에서 필요한 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펀드 출자를 통해 모험자본을 공급한다. 이때 은행이 적극 출자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위험경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, 5대 시중은행이 펀드 출자액에 대해 위험가중치를 400%가 아닌 100%를 적용하게 되었다.

미래에너지펀드는 상반기 중 조성을 완료하여, 올해 중 투자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. 또한,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」에서 신규 조성 계획을 밝힌 기후기술 분야에 ‘30년까지 총 3조원 규모로 투자하는 기후기술펀드 조성 협약식도 이달 중 개최될 예정이다.

- 별첨 : 1. 금융위원장 인사말씀
2. 미래에너지펀드 운영계획

담당 부서 < 총괄 >	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	책임자	과장	남동우 (02-2100-2860)
		담당자	사무관	안기빈 (02-2100-2864)
< 공동 >	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	책임자	국장	정우현 (02-3145-2080)
		담당자	팀장	명기영 (02-3145-8060)
< 공동 >	한국산업은행 PF2실	책임자	실장	안옥상 (02-787-5661)
		담당자	팀장	윤희진 (02-787-5671)
< 공동 >	국민은행 인프라영업부	책임자	부장	강호영 (02-2073-3247)
		담당자	팀장	전준 (02-2073-3288)
< 공동 >	신한은행 프로젝트금융부	책임자	부장	배두환 (02-2151-4810)
		담당자	팀장	박성흠 (02-2151-4189)
< 공동 >	하나은행 프로젝트금융부	책임자	부장	손국진 (02-729-8552)
		담당자	팀장	최재영 (02-729-8657)
< 공동 >	우리은행 인프라금융부	책임자	부장	김영종 (02-2002-3974)
		담당자	팀장	왕제연 (02-2002-3855)
< 공동 >	농협은행 프로젝트금융부	책임자	부장	이상대 (02-2080-3871)
		담당자	팀장	주운상 (02-2080-3874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

